多數한靑年拘留
종로경찰서에구인되여

요사히 종로경찰서 고등계에서는비밀리에 활동을 개시하야 몃칠재사회 주의방면에서 뒤를비어검속중이라는대사건의내용은아즉발표할시긔가 아니나이미구류된사람으로는 ▲李東益▲金錫漢▲李南斗▲文一實▲全一 외한명으로도 아즉도 장사람이잇는모양인대 권일의 죄명은거주규측위반이라하나그것은한구실에 지나지못하는것이며 그리면에는매우중대한사정이복재한모양이라더라

大串面救濟會에
동정금이오백여원

경향각처를 물론하고 긔근에부르짓는 동포를구제하고자 활동한다함은본보에 매일 보도한바어니와 이번김포군대곳면(金浦郡大串面)에서는 면장 조영만(趙永萬)씨외유지제씨의발긔로 면민 구조회를조직하고 면내각처로도라다니며 동포를 사랑하는동정을엇기로하엿든바경향각처에디주를비롯하야금일까지모집된금액이 오백여원에 달한다는데씨명은아래와갓다더라

沈星澤、沈駿澤、金演昌、金演根、金弘潤、李建鎬、李恒九、千葉鐵之助各三十圓▲林顯模、韓滋洞、韓亨顯、姜錫祜、朴憙永、各二十圓▲李孝殷、韓基洞、韓大河、李孝顒各十五圓▲洪顯化、韓鑠楨、沈雷澤、朴志勳、崔德激、金睿楨、金昌由、李圭元、李僑俄各十圓▲金泰顯、林容合、李振赫、文元鎭、李復寅、林學模、鄭永均、李性均、趙泰根趙東俊各五圓▲盧永祿、徐炳赫、金大根各三圓▲林仁模、李康晃、趙允信各二圓▲文元浩一圓▲區長一同十四圓▲面職員一同十圓(김포)

火災後洪川
復興運動
시민대회를열고 여러가지를결의

강원도홍천군(洪川郡)에서지난이일에 상업중심디되는 곳에서이십여호를 소실하고 상황이매우참담한바 그후 유지제씨로부터부흥 책을강구하고 지난십삼일에 시민대회를 개최하고위원장신규선(申圭善)씨의 사회로선후책을 협의한후 아래와가든결의를 하얏다더라

一、羅災民의生活安全을圖하기爲하야住宅及店舖를新築함에對하야材木은郡內國有林을無償拂下하도록郡當局에陳情할일

一、商業을振興하기爲하야市場區域을擴張整理하도록郡當局에交涉할일

一、復興에至하도록市場稅를輕減할일

一、敷地로서他人의所有土地는公正한時價로買收하도록關係地主에게交涉할일

一、生命財産을永遠히安全키爲하야消防器具를安全히할일

一、大火災復興事業에對하야萬一不同情又는阻害動作을行하는者에게排斥運動을할일(洪川)

寧安縣에理想村
거주동포가십여호에 교육긔관까지잇다고

중국길림녕안현(吉林寧安縣)서남륙십리에잇는동경성(東京城)은발해국(渤海國)때에 중경(中京)을두엇다가 그후남경(南京)으로고치고 금국(金國)에서 다시동경을 두엇슴으로 오날까지동경성이란 일음이 뎐하야오는대 장은사십리요 광은 이십리가량되는 광활한평야에 풍운우뢰묘(風雲雨雷廟) 가잇고 모단강(牡丹江)이궁형(弓形)으로도라 …

서경치가 매우분명하다는데 작년부터김성태(金性泰) 서용구(徐容九)외유지제씨로부터년년미흡따라 리상촌을 건설하고자수도(水稻)를심어든바성적이매우량호하야 농업을하고자 이사온사람이 벌서십여호나 된다하며장차 대규모로 경영할작정이라하며 소학교도설립하고 학생사십여명을 모아렬심으로 교육한다는데 장래에무궁한 희망이잇다더라(녕안통신)

慶南少年蹴球大會
량산소년단의주최로 래년일월이일에개최

경남량산(梁山)에서는량산소년단(梁山少年團)주최와량산청년회와 동아、조선량보본지국의후원으로 경남소년 축구대회(慶南少年蹴球大會)를명년일월이、삼일 량일간량산청년회운동장에서 개최할터이며 규뎡은 다음과갓다더라

◇大會의規定

一、本大會는慶南에在한少年團體에限함

一、本大會에參加코자하는團體는選手氏名과加入金二圓을添付하야本月卄九日內로申請할事

一、每團의選手는九人으로定하고候補二人으로함

一、選手의年齡은明治三十八年生으로하되但選手及候補者는面長의證明을要함

一、抽籤期日은一月一日午前十時로함

一、此外에競技規定과審判規定은體育會規定에依함(량산)

疑問中의 崔在仁의變死
매장사지는하얏스나 여러가지풍설이만다

전남화순군동면언도리(和順郡東面彥道里) 최재인 (崔在仁)은 지난십이일밤 자정쯤하야동리뒤내가에서죽은것을그잇흔날발견하고 즉시본인의 집으로다려다가 십오일에 매장하엿는데그죽은원인에대하야부근에서는 풍설이자자한바 그내용을듯건대최재인이 는삼년전부터광주사는문영현(文榮鉉)의토디서말닥을 …

無慘한僵屍
죽은지사흘이되야도 매장도못하고잇다고

지난십일일밤에 함남홍원군(咸南洪原郡)호현면룡택리(龍澤里)별관에서 팔십여세된강모(姜某)라는 걸인이 얼어죽엇는데그원인은 밥도잘 어더먹지못하고 잘집도업서 방황하다가 죽은모양인바 죽은지가 사흘이되얏스나 매장하지못 하얏다고(홍원)

소작하야
오든바문영현(文榮鉉)의 양자(養子)닷흡이나서 소작료를 량편에서 서로달라함으로 어느편이정말디주인지 몰라 어느쎄든지확실한디주가나서기전에는갓다줄수업다하고잇섯는데자칭양자라하는문중환(文仲煥)은아들문관호(文判鎬)외의오륙명을다리고 다니며 소작인들에게대하야위협도하며 호령도하고 …

趙金兩地主
소작인의원성이자자

충주군 충주면풍동(忠州郡忠州面楓洞)에는경성부수하뎡(水下町)조한익(趙漢翊) 과당군노은면가신동(老隱面佳新洞)김문식(金文植)의토디가잇는데 그두디주는사십여명 소작인에게 소작료는오할을 바드면서도 디세를소작인에게 밧고자함으로 일반소작인들은 원망이자자 하다더라(충주)

소작료를
밧고자하엿스나 밧지못하고북고잇든중 십일에문관호가 최재인이를보고 소작료를 자긔에게로 내지안는다고 도적놈 이라하며 서로 말닷흠이나서 구타까지일어나 쌈을몹시 마진 최재인이는 이 (齒)가들이 상하엿는데 즉시동면주재소로가서 몹시마저서 이가상하엿다는말을하고 집에 도라온후고소를 하겟다고 십이일에나갓섯는데평시에

아모병이
업든사람으로서그와가티 마진지 사흘만에죽엇슴으로 라살을 당하엿는가? 자살함인가? 혹시 얼어죽엇는가? 하야 사실을들어 동면주재소에 말하엿더니 십오일에주재소순사와화순경찰서공의(公醫)가와서 시톄를검시한후 아모일업스니 속히매장하라고 가바렷슴으로 최재인의 가족들은선후책을 강구중이라는데 일반은이뒤경과를매우주목한다더라

呼訴無處
최재인의아들말

이일에대하야 화순경찰서 사법주임손(孫)경부는말하되동면주재소에서 아즉까지 보고는업고경찰부(警察部)에서미리알고뎐화가왓슴으로 동면 주재소에지회하는동시에 공의를 보냇더니심장마비로 검뎡하여 왓습니다아마 별일업슬줄암니다하며 최재인의아달최일옹(崔日翁)는말하되 아즉아모수속은 아니하얏슴니다마는 이런 원통한일이어 …

自働車顚覆
승객들은중경상

지난십륙일 오후세시 삼십분경에음성군 생극면거평리(陰城郡笙極面車坪里)술집 압혜서경성으로부터데천(堤川)을향하야오든 해동자동차 (海東自働車)데오십이호가 동군감곡면 오향리(甘谷面梧香里) 김사석(金石)의구루마 소와 충돌되야승객언덕에 떠러저 전복되아승객중에 중경상자를 내엿다는데 전긔자세한내용을 듯건대 …

可憐한少婦
범과가티무서운 일인남편은웬일

십칠일 오후네시경에 룡산경찰서안에는약삼십여세되여보히는 일본인 로동자한사람과 아즉스무살이못되여보히는묘령의조선녀자가 한데얼키여 노동하라거나무살겟다느니 가티살자거나 못살겟다거니하야 일장활비극(悲劇)이연출되엿다 이제그자세한내용을 드르면 전긔일본인남자는광도현(廣島縣)에 …

원적을
두고방금룡산청수뎡(淸水町)오십번디에사는하야원치(河野元治)(三一)란자로서 지금으로부터 팔구년전에 조선에건너와서 로동에 종사하고잇던바 조선말을썩 릉통하는지인데 그러커렴돈푼이나 모하지고장가나한번드러보겟다하고지난구월경에 수원군(水原郡)에산다는림흥수(林興洙)란자 …

元山救濟歌劇

河東勞農會 臨時總會
팔개됴항결의

棉作組合員의不平
공동판매를폐하라고

高城水利組合 水稅不納同盟
등급도불공평할뿐아니라 우리하게바드려고한다고

鎭南浦詐欺漢
일본에서잡혀

京城市內 空家三千
조선인측일천칠백 일본인측일천삼백

洪原郡의 四寸輪車反對
전군민의일치운동으로 진정서를데출코자준비

두사람
그녀자
그무덤과
삼십오전
류학은
오십원
능한
언론은

老婆의行旅屍
부산에서

瑞麟洞火災
부엌빗갈이의

만주파라 푼푼히모흔돈을
감쪽가티가저간도적! 만주장사는경찰에애원

火災當하고 빌어먹자
원산에서

約婚한處女 情郎과逃走
약혼한신랑은 헛물만켯다

總理憑藉詐欺
징역이개년

坑夫壓死
무참하게죽엇다

團成社六週紀念

車票詐欺未遂
본뎡서에잡힌순진수

시내팔판동(八判洞)일백십삼번디자동차운뎐수김준수(金俊洙)(二六)는 십구일밤룡무의 화생승차할인권을엇어가지고경성역에서긔차표를 사다가 발각이나서즉시본뎡서에 류치되얏는데 압흐로 동긔밧화이 갓가워오니일반화생은 급히주의할일 이라더라

日小兒溺死
원산양지동(元山陽池洞)

원산양지동(元山陽池洞)팔십번디일본인목하광(木下廣)의헷재아달부웅(富雄)(一〇)은지난십오일오후다섯시경에 자긔집뒤에잇는 웅덩이에물을 길러갓다가 밋그러저서 웅덩이에 싸진것을 집사람이마츰발견하고 곳구해내여 의사에게응급치료를 하얏스나 필경절명되엿다고(원산)

◇集會◇

◇종로청년회일요강화 종로청년회에서는금이십일일오후세시에 최명헌(崔炳憲)씨를 청하야『구주탄강(救主誕降)』이란데목으로일요강화(日曜講話)를한다고

휘파람

세말이차차갓가워오면어는때에든지첨도가류행하는데 ▲더욱금년에는삼남디방의긔근이든데다가재계공황으로절도가격증하는중이다 ▲일반가뎡에서는각별히 조심을 하십시요서대 문밧평동근처에서 만주파라푼푼니모흔만주장사까지도 파라리를마첫다고 만주장사는 아모리도적이라도너무심하다고……도적에게인정업나는세음……

創作 검은敎師 (三)
星海

녀선생이 도라갈때는 벌서밤이 깁헛섯다 그녀자와 함께안저 서로말을 난호시간이 그러케 짧지는아니하엿스나 K에게는 오히려 짧은늣김이잇섯다 K는 녀선생이 도라간뒤에는 더욱 외로운생각이 낫섯다 서로사랑하는 사람들쎄리 처음만날때 자긔속에 잇는말을 상대자에게 다하지못하고 서로 자리를 떠나게된뒤에 비로소 후회하는듯한 늣김을 K도 늣기엇섯다 그리고 사랑하는사람들쎄리서로 처음맛나 이야이할때에 아모조록이 약이의 중심을 자긔자신의래력이나 현상에 두지안코제삼자(第三者)를 쇠집어다가 이약이거리를 삼는것과가티 K와녀선생의 그날밤이약이에도 이약이의 중심은 거의다 그들의 주위에잇는 사람이나 사건뿐이엇섯다 K는 녀선생이 도라간뒤에 한고독을 더욱 늣기는동시에 인간이란 어데까지든지 겁장이오 못난이를 면치못하는것이라고 생각하엿섯다

이와가티 K의 병을 위문온것이 한긔회가되야 그뒤부터는 K와 녀선생사이가 더욱 친근하여지는동시에 서로 심방(尋訪)하는도수도 자저젓섯다그래서 대단히 무간한사이가되엇섯다 그러나 그때까지 두사람사이에 사랑이니무엇이니하는것을 화제(話題)우에올려본적도 업섯다 그리고서로 동경하는것밧게는 서로 다른무엇을요구하라는열망(熱望)과충동(衝動)이 잇섯다하드래도 그쌔그두사람의 사정이 서로그것을 허락지안햇섯다 그러라

녀선생은 썩 탱정한얼골로 말하엿다

『선생님! 저는 오날에 선생님을 한마듸 들어보겟서요 똑진심으로 말슴하여주세요! 저는 선생님는한마듸로 제일을 결정하겟서요 저는이학교를 그만누고 집으로가겟습니다 갈반한집도 업는사람이올시다마는 엇쨋든 더구나 가겟서요 이러한곳에서 더구나 그러한 사람될라다못된사람들을 가운데에서 다못하로라도지낼수 업서요 아이구…… 그새지낸일만 하여도 꿈속갓해요』

이와가티 조곰도 서슴지도안코 병에서 몸씻듯말하는녀자의 얼골에는 가을아츰의찬서리와가티 싸늘한빗이 나타낫섯다

K는 이것이 엇더한연유인지몰랏다 그얼골을 볼때에평일의 녀선생과는 아조딴판으로아니 늣길수 업섯다

『무슨 일이 생겻슴닛가? 그러케 곳가시야할……?』

녀선생은 눈물이 그렁그렁한눈으로 K를 찬찬히 바라보더니

『커보세요 선생님! 저는아주 큰망신을하엿서요 저는이런일은 처음으로 당하는일이여요 사람이 사람갑에가지못하게되어요 엇지면 사람들이 그러케 못되엇서요? 사람을그러케 모함할것이 무엇일가요? 오늘커는 못당할모욕을 당햇서요』

『엇더케 되엇다는것을 말슴하십시오 대관절 엇더케된일임닛가? 말을 하십시요』

K는 하도 어이업서서가만히듯기만하엿다 벌서 이것은 엇더한사건이 이러난 것이라 짐작하엿섯다 그래서 녀자를위로하드시 물엇섯다

녀선생은 분에 복바치는것분숨을 쉬어가며 대답하엿다

K와녀선생사이가 엇쨋든 항용남자와 항용녀자의사이와는다른것을 학교직원들도짐작하엿고 K나녀선생들도 스사로 인정하게되엇섯다 이로부터 직투와시긔의 눈이 이두사람에게 컨보다도 더만히오는것도 사실이엇섯다 하로는 K가 학교에밧분일이잇서 늣게야 려관으로 도라왓더니 녀선생이 벌서자긔방에몬저와서 기다리고안젓섯다 K는방에 들어서며녀선생의 얼골빗을 바라볼때에바로 무슨 용이치안흔일이 생긴줄을직각뎍(直覺的)으로 알엇섯다

K는 황겁히 물엇섯다『엇전일이신닛가? 어데가불편하십닛가?』

녀선생은 희푸린얼골과 흥분한태도로 대답하엿다

『K선생님! 게시지도안흔방에왓다고 로하시지마서요 목할말슴이잇서서 그리고잇섯서요』

K는 방웃목에그대로 쏘그리고안즌 녀선생에게 요를까려자리를 권하며 말하엿다

『무슨말슴인가요 오날은작문(作文)을좀보누느라고 늣젓슴니다실례햇슴니다』